

# 모바일 헬스, 헬스케어 장벽 파괴

## 서비스 수요 증가는 텔레메디신 산업 변혁 지지

### 모바일 솔루션과 기술 시장 폭발적 성장 전망

이미 수십억 달러 원격의료 산업을 새로운 수준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모바일 헬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M&M(Markets and Markets)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mHealth(Mobile Health) 솔루션 시장은 2017년 905억 달러에서 2022년 21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3.7%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mHealth 시장의 성장은 헬스케어 앱(applications)의 수요 증가, 진전된 연결성과 네트워크 기술의 출현, 중단없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3G, 4G 네트워크의 강력한 침투, 환자 중심 헬스케어에 대한 초점 증가 등이 주요인이다.

기술은 스스로 더 잘 돌보기 위해 만성질환자들의 가장 혼란스런 헬스케어 도전 중 하나에 대한 새로운 해결을 제공하고 있다.

원격 모니터링, 행동수정과 환자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모니터링하는 맞춤 중재와 함께 디지털 메디신의 새로운 분야는 당뇨병, 심장병, 폐질환 등 가장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일부에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병원과 헬스 시스템들은 임상 시험에서 연구되고 스마트폰, 무선기기와 센서의 사용으로 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응용하고 있다.

### mHealth 기술

컨설팅업체인 BCC 리서치의 보고서를 보면 케어 계획의 일부로 커넥티드 기기를 특징으로 하는 일부 디지털 헬스 프로그램 종류를 사용하는 환자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2020년 5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mHealth 혁명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들과 네트워크 연결성은 물론 환자 중심 헬스 정책, 문화적 차이에 의해 드라이브되고 있다.

mHealth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지지하고 헬스케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바일과 와이어리스 기술들을 사용한다.

디지털 헬스 솔루션들은 헬스케어 질 개선, 의학 지식 대중화, 서비스에 제한됐거나 접근할 수 없는 수십억명에게 헬스케어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헬스케어의 공급은 경제적, 정치적 아젠다에 높게 남아있다.

더욱이 헬스케어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병의 이환율 증가가 도전인 선진국에서 GDP의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한 새로운 스마트폰앱은 인공지능과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추가 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사망의 87%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10만 명 여성 중 서구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2명이 사망하는 반면 동아프

리카는 27명 이상이다.

이런 차이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여성 사이에 고품질 헬스케어에 불균등한 접근 때문이다.

## mHealth 과제

mHealth 과제는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적용의 시작이다.

그러나 일부 장애들은 디지털 헬스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해 극복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은 단일화된 규제 환경과 헬스케어 제공자와 최종 사용자를 위한 포괄적 데이터 관리 틀 실행의 부족에 직면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바일 운영자, 정부와 비정부 기관과 헬스케어 업체 사이의 초월적 협력이 필수적이 될 것이다.

지불 책임, 이익, 경제적 실행 가능성 등 많은 의문이 있다.

미국은 대다수 환자가 자체 헬스케어 부담이나 민간 보험사에서 지불하고 있어 환자 중심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자들은 헬스에 더 주도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앱과 스마트 기기를 쉽게 이용한다.

이는 헬스케어 비용 감소, 헬스 결과 개선과 더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보상 제공에 도움이 된다.

유럽에서 대다수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정부 투자이다. 환자들이 개인 헬스케어에 접근하지만 일반 인구는 헬스 서비스들의 지불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국가들은 mHealth 기술들의 적용이 더 느리다.

계획은 의료 중재, 재원 일수 등 간접비용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헬스케어 솔루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일본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서 문화적 차이 때



문에 mHealth 기술의 응용이 다른 국가보다 뒤쳐져 있다.

그러나 적절한 의사에게 접근 부족과 신속한 헬스케어 제공에 대한 압박은 혈압, 체중, 활동 등 생명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원거리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mHealth 기술사용의 시작을 원거리에 독려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mHealth 기술의 활용은 이런 기술의 사용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을 위해 저·중소득국에서 활동하는 mHealth Alliance 등 국제기구에 의해 크게 드라이브되고 있다.

이런 기구들은 원거리 지역에 문자 메시지 서비스부터 가상 클리닉과 헬스케어 전문가에 환자 접근 증가는 물론 질병 확산 모니터링과 유행 동안 치료 전략 시행을 하고 있다.

BCC 리서치는 북미는 2016년 47억 달러와 글로벌 매출의 약 1/3을 차지한 mHealth 기술의 주요 시장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최대 모바일 시장이다.

BCC는 아시아 태평양 mHealth 시장은 2021년까지 연간 27.5%의 성장률을 예상한 반면 북미와 유럽은 각각 29%, 27%의 성장을 예측했다.